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TRADE FOCUS

2016년 26호

한·EU FTA와 브렉시트(BREXIT)

—한·EU FTA 5주년 평가와 브렉시트 이후 전망—

2016년 6월

통상연구실 정혜선 연구원
제현정 연구위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iit.kita.net

CONTENTS

[요 약]	i
I. 브렉시트(Brexit) 동향과 전개	1
1. 동향	1
2. 해외반응	2
II. 한·EU FTA 평가와 시사점	3
1. 한·EU 수출입동향	3
2. 한·EU FTA 수출 성과분석	9
3. 한·EU FTA 이후 수입 현황	24
III.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영향	28
1. 세계 경제 및 EU에 미치는 영향	28
2. 한국의 對EU 수출영향	30
3. 브렉시트와 한·영 FTA 추진	32
IV. 결론 및 대응전략	35

□ 보고서 내용 문의처

정 혜 선 연구원

제 현 정 연구위원

(☎ 02-6000-5344, hsjung1110@kita.net)

(☎ 02-6000-5175, hjje76@kita.net)

[요약]

6.23일(현지시간) 실시된 영국 국민투표에서 찬성 51.9%로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되었다. 주요 금융기관들은 브렉시트에 따른 글로벌 금융 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비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에서 0.1~0.3%p 하향 조정하였으며, 영국 경제는 EU에 잔류했을 때에 비해 중장기적으로 7.7%까지 후퇴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경기둔화가 우려된다. 향후 영국은 유럽의회에 탈퇴를 통보한 후 2년 동안 EU 회원국들과 탈퇴 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발효 5주년을 맞은 한·EU FTA 성과를 살펴보면 하반기부터 FTA 수혜 품목을 중심으로 EU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FTA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외부적 요인이 겹치며 발효 직후 무역수지 적자가 오히려 확대되어 FTA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최근 EU 경기회복에 힘입어 FTA에 의해 관세가 철폐·인하된 수혜 품목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발효 5년차에 자동차 및 부품, 축전지 등 FTA로 관세가 철폐·인하된 수혜품목 수출은 12.5%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EU 수입시장 점유율도 발효 전 2.25%에서 2.43%로 상승하였다. 브렉시트 진원지인 영국에 대한 FTA 수혜품목 수출은 발효 5년차에 20.6% 증가했으며 수출 활용률이 80%를 상회하여 기업의 활용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한·EU FTA 성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브렉시트라는 대외여건이 조성되면서 EU와 영국의 경기 둔화와 환율 절하에 따른 수입 수요 감소로 EU 및 영국에 대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 영국이 완전히 EU에서 탈퇴하기 전까지는 영국으로의 수출 시 한·EU FTA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추가적인 관세부담은 없으나 현지 경기 둔화와 파운드화·유로화 약세로 인한 수입수요 감소가 우려된다. 영국의 EU 탈퇴가 완료되면 영국 시장에서 누렸던 한·EU FTA 특혜가 사라지면서 영국 수출 시 다시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관세가 부과되는 시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한·EU FTA를 그대로 승계하는 방식으로 한·영 FTA를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경제주체별로는 브렉시트에 따른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과 향후 실물 경기에 대한 파장이 예상됨에 따라 기업·정부·유관기관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기업은 지역별 수출 및 생산전략을 재검토하고 환변동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기업들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한·영 FTA를 추진하는 한편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가간 공조를 강화해나가야 한다. 유관기관은 영국과 EU간 탈퇴협상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가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무역협회는 홈페이지(www.kita.net)에 브렉시트 배너를 설치하여 현장애로를 수시로 접수하고 관련 정보를 무역업계 및 정부에 실시간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본 문

I. 브렉시트(Brexit) 동향과 전개

1. 동향

- 6.23일(현지시간) 실시된 영국 국민투표에서 찬성 51.9%로 브렉시트 가결
- 가결 이후 금융시장 불안이 현실화되며 세계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한 우려 확산
 - 가결 당일 주요 증시가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달러화·엔화 가치가 급상승한 반면 영국을 포함한 유럽지역과 신흥국 통화가치는 급락
 - * 주가 변동(가결 당일): 일본 니케이 255: -7.92%, 미국 다우존스 -3.39%, 영국 FTSE 100: -3.15%, 유로 Stoxx: -8.62%
 - * 환율 변동(가결 당일): 파운드/달러: 8.81%, 유로/달러: 2.5%, 엔/달러: -3.71%
- 향후 영국은 EU 기본조약인 리스본조약 제50조에 의거하여 탈퇴 통보 후 유예기간(2년) 동안 EU 회원국들과 탈퇴 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
 - 탈퇴 협상은 영국이 유럽이사회에 탈퇴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진행되며 협상 결과에 대해 유럽의회로부터 승인을 득한 후 유럽이사회가 가중다수결¹⁾을 거쳐 최종 결정
 - 2년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유럽이사회와 영국이 만장일치로 협상 기한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영국은 자동으로 EU에서 탈퇴
- 실제 탈퇴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EU 의회는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신속한 탈퇴 절차 진행을 강조
 - 탈퇴 협상 이후 협상안에 대해 유럽의회와 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실제 탈퇴가 이뤄지기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음
 - 투표결과 발표 직후 유럽의회는 공식 선언문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공식탈퇴 절차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탈퇴협상 연장은 불가하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

1) 회원국의 55%이상이 찬성하고(28개 회원국 중 16개국 이상 찬성), 찬성 국가의 총 인구수가 EU 인구의 65% 이상일 경우 가결됨

2. 해외반응

- 투표결과 발표 직후 주요기관에서 영국 및 세계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EU 업계는 불확실성 해소를 촉구
-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제로의 전이가 우려되는 가운데 일부 국가에서는 환율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시사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
- EU 업계는 EU의 역내외 무역정책은 변함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메시지 전달을 촉구

美, 제이콥 루 재무장관, “미국과 영국은 EU 내 파트너 및 시장 참가자들과 정기적인 접촉을 가져왔으며 대응방안을 긴밀하게 상의”
中, 리커창 총리, “브렉시트로 국제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이 이미 선명하게 나타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더 증가. 세계 경제의 회복, 각국 경제의 성장을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함께 찾아 나가야 한다”
日, 아베신조 총리, “세계 외환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다. 확실히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
Business Europe, “EU 경제의 3가지 핵심인 단일시장, 공동 무역정책, 유로화에 대한 EU 회원국의 의지를 다시 밝혀 달라”

- (현지진출 우리 기업) EU 내 생산기지를 보유한 우리 기업들은 EU 경기회복 지연 및 유럽시장 소비심리 위축 등 실물경제로의 파급효과 주시
- 실제 탈퇴가 이뤄지기 전까지 무역·투자에 대한 기존 영-EU 관계가 유지되므로 단기간에 대영국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
- 반면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EU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전반적인 유럽의 수요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주시
-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상이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힘
- EU와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를 진행 중인 미국도 협상이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

II. 한·EU FTA 평가와 시사점

1. 한·EU 수출입 동향

(1) 총괄

- 2016.1~5월 한국의 對EU 무역은 전년 동기대비 -4.6% 감소한 408.2억 달러 기록
-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8% 증가한 194.3억 달러, 수입은 -9.7% 감소한 213.9억 달러 기록
- 무역수지는 전년 동기대비 26.4억 달러 개선된 19.5억 달러 적자임

〈 최근 한국의 對EU 무역 동향 〉

(단위 : 억 달러,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1-5월
수출	466.1	535.1	557.3	493.7	488.6	516.6	480.8	194.3
(증가율)	(-20.2)	(14.8)	(4.1)	(-11.4)	(-1.0)	(5.7)	(-6.9)	(1.8)
수입	322.3	387.2	474.2	503.7	562.3	623.9	572.0	213.9
(증가율)	(-19.4)	(20.1)	(22.5)	(6.2)	(11.6)	(11.0)	(-8.3)	(-9.7)
무역	788.4	922.3	1,031.5	997.4	1,050.9	1,140.5	1,052.8	408.2
(증가율)	(-19.8)	(17.0)	(11.8)	(-3.3)	(5.4)	(8.5)	(-7.7)	(-4.6)
수지	143.8	147.9	83.0	-10.0	-73.7	-107.4	-91.2	-19.5

주: ()는 전년동기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 최근 한국의 對세계 수출증가율이 부진을 겪는 가운데 對EU 수출은 올해 들어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올해 5월까지 주요 수출시장에 대한 수출이 모두 감소한 반면 EU로의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8% 증가한 194.3억 달러 기록
- 지난해에도 한국의 對세계 수출 증가율이 -8.0%로 부진한 가운데 對EU 수출은 -6.9%를 기록해 여타지역에 비해 낮은 감소율을 시현

〈 최근 한국의 주요국 수출 동향 〉

(단위 : 억 달러,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1-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EU	557.3	4.1	493.7	-11.4	488.6	-1.0	516.6	5.7	480.8	-6.9	194.3	1.8
중국	1,341.9	14.8	1,343.2	0.1	1,458.7	8.6	1,452.9	-0.4	1,371.2	-5.6	480.9	-15.0
미국	562.1	12.8	585.2	4.1	620.5	6.0	702.8	13.3	698.3	-0.6	282.8	-3.2
아세안	718.0	35.0	791.5	10.2	820.0	3.6	845.8	3.1	748.2	-11.5	294.6	-5.2
일본	396.8	40.8	388.0	-2.2	346.6	-10.7	321.8	-7.2	255.8	-20.5	93.5	-15.7
전 세계	5,552.1	19.0	5,478.7	-1.3	5,596.3	2.1	5,726.6	2.3	5,267.6	-8.0	1,964.5	-11.5

주: 전년동기비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 對EU 수입은 FTA 발효 직후 2011~2014년 증가세에서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전환
- 對EU 수입은 2012년 이후 원유 등 원자재 수입이 급증하며 여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입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對세계 수입이 감소한 2013년에도 증가세를 이어갔음
- 지난해 對EU 수입액은 -8.3% 감소하였으나 전체 수입(-16.9%)에 비해 낮은 감소폭을 시현했으며 이러한 기조는 올해 5월까지 유지되고 있음

〈 최근 한국의 주요국 수입 동향 〉

(단위 : 억 달러,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1-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EU	474.2	22.5	503.7	6.2	562.3	11.6	623.9	11.0	572.0	-8.3	213.9	-9.7
중국	864.3	20.8	807.8	-6.5	830.5	2.8	900.8	8.5	902.5	0.2	343.7	-7.1
미국	445.7	10.3	433.4	-2.8	415.1	-4.2	452.8	9.1	440.2	-2.8	173.5	-3.9
아세안	531.2	20.5	519.8	-2.2	533.4	2.6	534.2	0.1	450.3	-15.7	174.4	-7.3
일본	683.2	6.3	643.6	-5.8	600.3	-6.7	537.7	-10.4	458.5	-14.7	181.4	-8.5
전 세계	5,244.1	23.3	5,195.8	-0.9	5,155.9	-0.8	5,255.1	1.9	4,365.0	-16.9	1,586.1	-14.6

주: 전년동기비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 품목별로는 선박, 승용차, 자동차 부품 등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수입은 승용차, 의약품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

- 주요 품목인 선박(-37.8%) 수출이 올해 부진을 겪는 가운데 자동차 부품(5.6%)과 축전지(41.6%) 수출이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그 외 올해 초 대규모 철구조물(10.2억 달러) 및 해양구조물(2.7억 달러) 수출이 전체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
- 이란 제재 이후 수입이 급증했던 원유(-8.0%), 나프타(-22.4%) 등 원자재는 유가하락의 영향으로 수입액은 감소했으나 물량 기준으로는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對EU 원유 수입물량 추이(만 배럴) : 2,240.0('13) → 2,585.4('14) → 2601.2('15) → 1,119.4('16.1~5.)

〈 한국의 對EU 수출입 품목 현황 〉

(단위 : 억 달러, %)

수출						수입					
품목명 ¹⁾	2015년			2016.1-5월		품목명	2015년			2016.1-5월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금액	증가율
선박	81.5	29.8	17.0	18.0	-37.8	승용차	78.8	31.9	13.8	28.3	-9.8
승용차	50.3	-9.8	10.5	21.9	3.0	의약품	22.8	-9.1	4.0	10.2	22.8
자동차부품	42.1	8.6	8.8	17.5	5.6	반도체제조용장비	19.1	-5.7	3.3	6.2	-31.1
합성수지	20.1	-4.8	4.2	9.6	32.6	자동차부품	14.8	-16.7	2.6	6.8	9.9
평판디스플레이	17.0	-42.7	3.5	3.9	-54.0	원유	14.0	-47.4	2.4	3.9	-8.0
집적회로반도체	12.9	-5.4	2.7	4.3	-24.1	기타정밀화학원료	13.3	-9.5	2.3	5.3	-5.0
무선전화기	10.3	-48.8	2.1	2.5	-30.0	나프타	12.6	-21.8	2.2	3.5	-22.4
제트유및등유	9.5	-51.4	2.0	2.2	-18.1	펌프	11.8	-17.4	2.1	4.5	-9.0
축전지	8.8	30.4	1.8	4.3	41.6	원동기	11.2	-5.6	2.0	4.1	-3.9
건설중장비	8.5	-21.0	1.8	4.9	20.4	항공기	10.8	-31.4	1.9	0.5	-90.9
전체	480.8	-6.9	100.0	194.3	1.8	전체	572.0	-8.3	100.0	213.9	-9.7

주: MTI 4단위 기준, 전년동기비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2) 무역수지 적자 원인2)

- 2012년 이후 對EU 수출이 부진을 겪는 가운데 수입이 급증하면서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
- 2012년 -10억 달러 적자전환 이후 2014년 역대 최대치인 -107.4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올해 5월까지 적자를 유지 중임
- 2012년 당시 원자재 무역이 -66.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며 초기 적자 전환을 주도하였으나, 최근에는 소비재 적자폭이 확대되는 추세

〈 최근 한국의 對EU 성질별 무역수지 동향 〉

(단위 : 억 달러,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1-5월
원자재	-18.0	-32.5	-26.9	-66.5	-74.0	-74.7	-49.8	-1.9
<증감액>	<-6.7>	<-14.4>	<5.5>	<-39.6>	<-7.5>	<-0.7>	<24.9>	<20.1>
자본재	125.4	159.0	96.3	54.2	-9.3	-13.9	1.6	-1.8
<증감액>	<-4.6>	<33.5>	<-62.6>	<-42.2>	<-63.5>	<-4.6>	<15.5>	<4.9>
소비재	37.1	22.1	15.0	3.4	9.7	-18.1	-42.1	-15.7
<증감액>	<-29.7>	<-15.0>	<-7.1>	<-11.6>	<6.3>	<-27.8>	<-24.1>	<1.2>
전체	143.8	147.9	83.0	-10.0	-73.7	-107.4	-91.2	-19.5
<증감액>	<-40.2>	<4.1>	<-64.8>	<-93.1>	<-63.7>	<-33.6>	<16.2>	<26.4>

주: 증감액은 전년동기대비, 기타 품목 제외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 무역수지 적자 전환에는 국제정세 및 무역구조 변화 등 시기적으로 맞물린 FTA 외적 요인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발효 초기 EU 재정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 해외생산 본격화로 수출 부진과 수입 확대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적자 전환에 기여
- 특히 무역수지 적자 최대치를 기록한 2014년에는 항공기, 천연가스 등 FTA와는 무관한 품목들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해 무역수지에 영향을 주었음
- 기존 무관세 품목 또는 국내수요나 국제 가격에 영향을 받는 품목으로 FTA와는 무관

2) 제현정, '수입 급증, 수출 담보로 對EU 무역수지 적자 확대,' IIT Trade Brief, 2015. 참고

① 수출 측면

■ (경기적 요인) 재정위기로 인한 EU의 수입수요 감소, 유로화 약세 등 경기적 요인이 수출부진으로 이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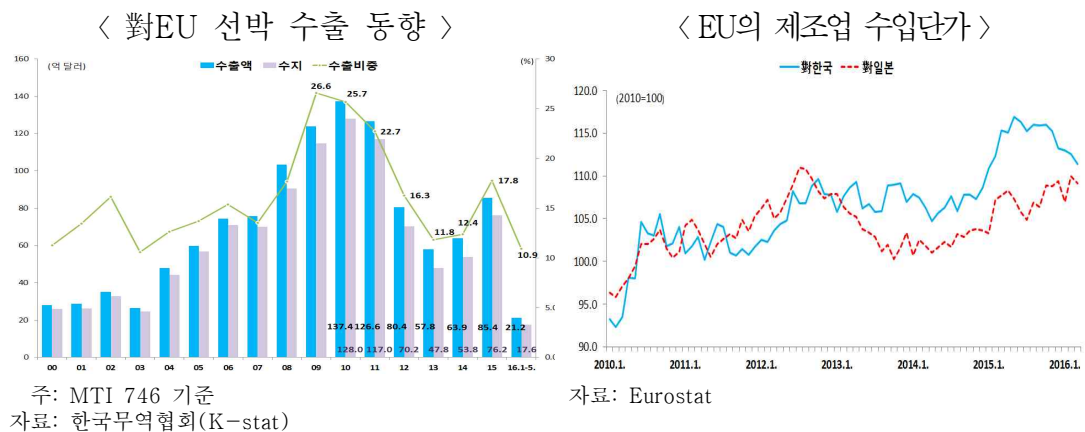
- 재정위기와 신용경색으로 조선업 경기가 위축되면서 주력 수출품목이자 무역수지 흑자 품목인 선박 수출이 급감하여 對EU 수출 감소에 영향
 - － 재정위기 확산 전인 2010년 기준 對EU 수출의 선박 비중은 25.7%로 조선업 경기 악화가 총 수출에 미치는 충격도 클 수밖에 없는 구조

- 한편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로 유로화 약세가 지속되면서 수출 기업의 가격경쟁력 및 채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유로화 약세로 2012년 이후 EU의 對한국 제조업 수입단가는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엔저기조를 유지해온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

* 원/유로환율 변동률(전년동기비 %) : 0.4('13) → -3.8('14) → -10.3('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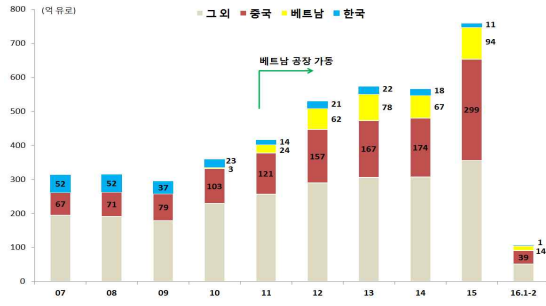
* 엔/유로환율 변동률(전년동기비 %) : 26.5('13) → 8.2('14) → -4.3('15)



■ (구조적 요인) 무선전화기 및 자동차 등 주요 품목의 해외생산 비중이 확대되어 EU에 대한 직수출이 감소하거나 성장이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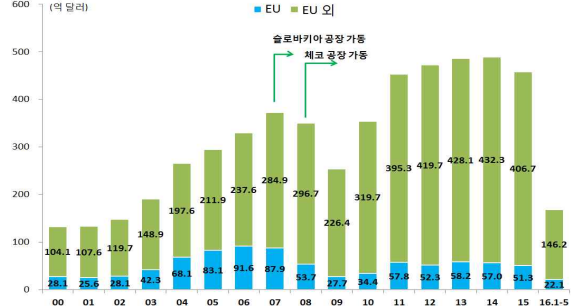
- 2011년 무선전화기 생산기지가 베트남으로 이전되면서 한국산 수입이 베트남산으로 대체되었고 2007년에는 체코, 슬로바키아에 자동차 공장이 가동을 시작해 현지생산체제를 갖추

〈 EU의 주요국별 무선전화기 수입 〉



주: HS85171200 기준
자료: Eurostat

〈 對EU 자동차 수출 추이 〉



주: MTI 741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② 수입 측면

■ (지정학적 요인) 2012년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이란산 원유 수입을 영국산으로 전환하며 수입이 급증

● 2012년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입은 전년대비 -32.0% 감소한 반면 영국으로부터의 수입은 726.5% 증가한 28.1억 달러 기록

● 적자폭이 확대된 2012~2014년 동안 총 수입 대비 원유수입 비중은 4~5%에 달함

* 對EU 총수입 중 원유수입 비중 : 5.6%('12) → 4.1%('13) → 4.2%('14)

〈 최근 한국의 원유수입 동향 〉

(단위 : 억 달러, %)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1-5월
영국 (증가율)	—	—	3.4	28.1	23.1	26.5	14.0	3.9
	—	—	—	(726.5)	(-17.8)	(14.7)	(-47.4)	(-8.0)
이란 (증가율)	48.6	55.8	93.6	63.6	51.3	45.0	22.1	12.4
	(-29.5)	(14.8)	(67.6)	(-32.0)	(-19.3)	(-12.3)	(-51.0)	(28.1)
전세계	507.6	686.6	1,008.1	1,083.0	993.3	949.1	551.2	114.5

주: MTI 131기준, 전년동기비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 (FTA 효과) FTA 발효 이후 EU로부터의 소비재 수입이 큰 폭으로 확대

● 총 수입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6.5월 기준 25.3%에 달함

* 對EU 수입 중 소비재 비중(%) : 17.7('12) → 17.7('13) → 20.0('14) → 23.8('15) → 25.3('16.1-5.)

● 수입차, 육류, 고급소비재 수입이 급증하며 무역수지 적자에 기여

* 對EU 자동차 수입 증가율(전년대비%) : 34.0('11) → 18.8('12) → 17.0('13) → 53.4('14) → 25.7('15)

* 對EU 주요 소비재 무역수지(억 달러, 2015) : 돼지고기(-7.2), 가죽제 가방(-6.3), 포도주(-1.0)

2. 한-EU FTA 수출 성과분석

※ 품목별 FTA 수혜품목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EU통계청(Eurostat)의 수입통계를 이용하였으며, 본 보고서의 對EU 수출은 EU의 對韓 수입을 의미함

■ 한-EU FTA 발효 5년차 對EU 수출은 올해 2월까지 4년차 대비 8.3% 증가한 277억 유로 기록

- FTA 수혜품목 수출은 5년차에 접어들며 12.5% 늘어나 발효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FTA 발효 이후 2년차까지 총 수출은 감소한 반면 수혜품목 수출은 1, 2년차 각각 12.0%, 0.3%의 증가율을 기록
- 수혜품목 수출 증가율도 3년차부터 4.5% → 10.6% → 12.5%로 매년 높아지고 있음

〈 FTA 혜택별 對EU 수출 증가율(EU의 對韓 수입) 〉

(단위 : 억 유로, %)

	발효 전	1년차 (‘11.7.~’12.6.)		2년차 (‘12.7.~’13.6.)		3년차 (‘13.7.~’14.6.)		4년차 (‘14.7.~’15.6.)		5년차 (‘15.7.~’16.2.)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혜	181.0	202.7	12.0	203.3	0.3	212.5	4.5	235.1	10.6	170.3	12.5
비수혜	199.1	175.0	-12.1	152.8	-12.7	165.8	8.5	166.2	0.3	106.7	2.3
전체	380.1	377.7	-0.6	356.1	-5.7	378.3	6.2	401.3	6.1	277.0	8.3

주: 전년동기비

자료: Eurostat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한-EU간 수출입 통계 차이 】

· 한국통계 기준 발효 4년차 對EU 수출은 -7.8% 감소하였으나 EU통계청(Eurostat)에 따르면 동 기간 EU측 對韓 수입은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통계 차이에는 작성 기준이 되는 통화 간 환율변동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한국: 미 달러, EU: 유로화)

- 유로/달러 환율은 '14.3월 0.723€/ \$ → '15.4월 0.926€/ \$ 까지 상승(유로화 약세 심화)
- 따라서 달러로 표시되는 한국 측 수출통계와 유로화로 표시되는 EU측 수입통계에 차이가 발생



■ 발효 5년차 EU의 對세계 수입이 2.7% 증가한 반면 한국의 對EU 수출은 FTA 효과에 힘입어 8.3% 증가

- 발효 초기 EU 재정위기 여파로 주요 경쟁국들이 전반적인 수출 부진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FTA 수혜품목의 수출은 EU의 對세계 수입 증가율을 상회하며 꾸준히 증가

〈 한·EU FTA 이후 주요국의 對EU 수출 증가율(EU의 수입) 비교 〉

(단위 : %)

	1년차 (‘11.7.~’12.6.)			2년차 (‘12.7.~’13.6.)			3년차 (‘13.7.~’14.6.)			4년차 (‘14.7.~’15.6.)			5년차 (‘15.7.~’16.2.)		
	수혜	비수혜	전체	수혜	비수혜	전체	수혜	비수혜	전체	수혜	비수혜	전체	수혜	비수혜	전체
한국	12.0	-12.1	-0.6	0.3	-12.7	-5.7	4.5	8.5	6.2	10.6	0.3	6.1	12.5	2.3	8.3
일본	9.5	-20.7	-1.7	-18.9	0.9	-13.0	-7.0	-8.0	-7.3	4.8	4.4	4.7	14.0	0.4	9.2
중국	0.0	-3.8	-1.7	-1.7	-6.3	-3.7	4.0	-2.2	1.3	15.4	15.0	15.2	8.4	10.2	9.1
대만	-3.9	-14.9	-9.9	-4.6	-11.7	-8.3	3.8	10.9	7.3	15.0	-2.0	6.3	10.8	6.7	8.8
전 세계	1.0	9.1	4.7	-2.7	0.9	-1.0	3.7	-3.7	0.1	6.5	-0.3	3.3	7.7	-3.2	2.7

주: 1) 전년동기비

2) 한·EU FTA 수혜-비수혜 품목 분류를 여타국에게 동일 적용

자료: Eurostat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발효 5년차 EU 역외수입시장 점유율은 2.43%를 기록해 발효 전에 비해 0.18%p 상승

- 한국의 EU 역외수입시장 점유율은 발효 직후 오히려 감소하였으나 3년차부터 증가세를 시현
- 특히 발효 이후 일본과의 수출경합도가 소폭 상승한 가운데 점유율 격차는 발효 전 1.84%p에서 1.06%p까지 좁혀져 FTA가 수출 경쟁력 향상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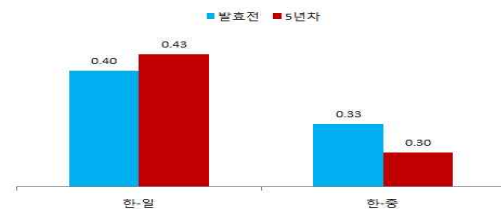
〈 EU 역외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

(단위 : %)

	발효 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한국	2.25	2.10	2.01	2.21	2.30	2.43
일본	4.09	3.77	3.33	3.20	3.28	3.49
중국	17.66	16.30	15.94	16.71	18.86	21.14
대만	1.53	1.29	1.20	1.34	1.39	1.50

자료: Eurostat

〈 對EU 한·일, 한·중 수출경합도 추이 〉



주: HS 6단위 기준
자료: Eurostat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FTA 혜택별 수출 성과 분석방법 】

- 분석대상: EU의 對세계,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품목별 수입 데이터
 - 품목별 관세 인하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EU측 수입 데이터(Eurostat) 활용
 - ① FTA 수혜품목: 2011년 7월 1일 FTA 발효 이후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단계별로 인하되는 품목
 - ② FTA 비수혜품목: 원래 관세가 0%인 무관세 품목이나 양허 제외 품목 혹은 기타품목
 - 경쟁국 대비 한·EU FTA의 상대적 효과를 도출하기 위해 동일 기간에 대해 EU의 경쟁국에 대한 수입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
- 분석기간: 2010.7.~2011.6.(FTA 발효 전), 2011.7.~2016.2(발효 1~5년차)
- 분석방법: 한·EUFTA 발효 후 EU의 對한국, 일본, 중국, 대만에 대한 품목별 수입 데이터 (각 국의 對EU 수출)와 한·EU FTA의 EU측 상품 양허 및 EU의 현행 관세율을 연계하고 FTA 수혜품목과 비수혜품목으로 구분하여 한국의 FTA 수출 성과를 분석
- ※ 한·EU FTA 양허안은 HS 2007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현재 HS 2012년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양허안과 수입 통계 데이터 연계시 일부 HS코드에 대해 불일치 문제 발생. 이에 EU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의 관세율 DB 및 HS코드 변경 이력을 종합하여 자료간 오차를 최소화

(1) 각 산업의 FTA 수출 성과 분석

- 발효 5년차까지 자동차 부품, 축전지 등 FTA 수혜품목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對EU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일부 주력 수출품목은 생산기지 해외이전의 영향으로 직수출이 감소·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부품) 발효 초기 EU 수요 부진 여파로 수출이 소폭 감소했으나 이후 EU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3년차(6.3%)부터 반등하여 5년차에 25.7% 증가
 - 자동차 기어박스(125.2%), 알루미늄 휠(73.5%), 방열기(158.0%) 등 주요 부품에 대한 3~4.5%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면서 수출 증가에 기여
- (승용차) 현지생산체제 구축으로 한국에서의 직수출이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하지는 못했으나 10%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가운데 EU측 수요 증가를 발판으로 5년차에 17.3% 증가
- (축전지) FTA로 2.7~3.7%의 관세가 발효 즉시 철폐되어 3년차부터 59.5% → 41.1% → 58.4%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임
 - 발효 5년차에는 EU의 對세계 증가율(17.7%)을 상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쟁국인 일본(12.7%)과 대만(26.0%)에 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음
 - 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 확대에 힘입어 발효 전 한국의 對EU 수출에서 축전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1.1%에서 발효 5년차 3.5%까지 증가
 - 주력 품목인 리튬이온배터리의 점유율은 발효 1년차 11.8%에서 발효 5년차 18.4%까지 6.6%p 증가
- (화학제품) FTA 수혜 품목의 수출이 발효 5년차에는 18.1% 증가하여 경쟁국인 일본(2.4%), 중국(8.5%), 대만(3.2%)의 증가율을 상회
- (선박) 주력 수출품목이나 대부분이 비수혜 품목으로 EU 경기회복에 힘입어 3년차 이후 회복세를 보였음

- (기계) 발효 3년차부터 EU 수입수요가 회복되면서 발효 5년차에 11.8% 증가
 - 디젤 엔진 부품(43.4%), 온도조절기 부품(19.9%) 등 주요 부품 수출이 호조를 보임

〈 산업의 FTA 혜택별 對EU 수출 현황(EU의 수입)① 〉

		FTA 수혜품목(억 유로, %)				FTA 비수혜품목(억 유로, %)				전체(억 유로, %)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증 가 율	자동차부품	18.4	19.5	23.8	18.7	-	-	-	-	18.4	19.5	23.8	18.7
	한국	-3.5	6.3	22.1	25.7	-	-	-	-	-3.5	6.3	22.1	25.7
	일본	2.7	-20.6	-8.1	34.8	-	-	-	-	2.7	-20.6	-8.1	34.8
	중국	2.0	14.7	14.3	22.9	-	-	-	-	2.0	14.7	14.3	22.9
	대만	3.2	20.0	13.7	23.9	-	-	-	-	3.2	20.0	13.7	23.9
	전세계	-2.0	9.4	6.5	10.3	-	-	-	-	-2.0	9.4	6.5	10.3
증 가 율	승용차	40.0	40.4	40.2	29.4	-	-	-	-	40.0	40.4	40.2	29.4
	한국	0.2	0.9	-0.3	17.3	-	-	-	-	0.2	0.9	-0.3	17.3
	일본	-12.3	-6.9	20.2	48.2	-	-	-	-	-12.3	-6.9	20.2	48.2
	중국	-1.4	-48.8	-35.3	6.3	-	-	-	-	-1.4	-48.8	-35.3	6.3
	대만	-34.9	6.6	11.2	26.1	-	-	-	-	-34.9	6.6	11.2	26.1
	전세계	-5.9	9.9	12.9	21.8	-	-	-	-	-5.9	9.9	12.9	21.8
증 가 율	축전지	2.6	4.2	6.0	6.0	-	-	-	-	2.6	4.2	6.0	6.0
	한국	-2.2	59.5	41.1	58.4	-	-	-	-	-2.2	59.5	41.1	58.4
	일본	-17.9	23.9	2.7	12.7	-	-	-	-	-17.9	23.9	2.7	12.7
	중국	-4.0	-0.1	32.3	14.4	-	-	-	-	-4.0	-0.1	32.3	14.4
	대만	-4.9	-9.2	11.4	26.0	-	-	-	-	-4.9	-9.2	11.4	26.0
	전세계	0.4	8.0	15.7	17.7	-	-	-	-	0.4	8.0	15.7	17.7
증 가 율	화학제품	26.6	32.1	37.2	28.0	3.4	4.6	7.1	5.6	30.1	36.7	44.3	33.7
	한국	21.3	20.6	15.7	18.1	-8.0	33.7	55.0	40.0	17.0	22.1	20.7	21.3
	일본	18.5	-6.2	9.9	2.4	37.0	-10.2	-1.4	9.4	23.8	-7.5	6.4	4.4
	중국	1.1	4.4	17.7	8.5	1.1	-0.1	11.2	8.8	1.1	3.6	16.6	8.5
	대만	-1.1	7.9	10.0	3.2	9.7	2.6	19.0	20.3	0.4	7.1	11.4	5.7
	전세계	0.4	0.1	4.2	6.4	3.5	2.0	7.8	8.1	1.7	0.9	5.7	7.1
증 가 율	선박 및 해양구조물	0.0	0.0	0.0	0.0	27.6	38.3	37.5	20.4	27.6	38.3	37.5	20.4
	한국	-50.9	75.3	59.3	19.1	-41.2	38.9	-2.3	10.3	-41.2	38.9	-2.3	10.3
	일본	-99.2	12.4	-8.7	27.6	-74.4	158.2	143.0	109.2	-90.9	150.2	139.2	108.2
	중국	-20.6	2.7	26.0	42.8	-22.8	-28.6	-49.1	-48.6	-22.7	-27.8	-46.0	-42.5
	대만	-32.6	16.7	-47.0	548.9	553.1	-72.5	-67.0	166.8	422.3	-70.0	-64.8	205.4
	전세계	-12.0	-8.9	21.1	26.8	-27.7	17.6	-13.3	15.2	-26.4	15.0	-10.7	16.3
증 가 율	기계 (비전기기기)	26.8	28.8	34.0	24.3	17.2	19.8	20.2	14.3	44.0	48.6	54.1	38.6
	한국	-10.6	7.7	17.7	11.8	-4.7	14.6	2.0	11.6	-8.4	10.4	11.3	11.7
	일본	-35.4	-3.4	-3.6	1.3	64.3	-0.2	4.6	-9.1	-15.0	-2.1	-0.3	-3.2
	중국	1.8	7.7	16.3	13.6	0.0	-0.3	3.2	3.3	0.5	1.8	6.8	6.2
	대만	-7.1	8.5	17.2	7.1	-2.7	2.5	1.0	3.2	-4.5	4.9	7.8	4.9
	전세계	-2.0	4.6	5.7	6.3	-3.5	-0.3	5.0	4.4	-2.6	2.6	5.4	5.5

주: 전년동기비, WTO 산업분류 바탕 재분류
 자료: Eurostat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전기전자) 수혜품목의 수출증가율이 발효 5년차 -1.7%로 소폭 감소
 - 주요 품목 가운데 TV 카메라(-26.4%),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24.1%)의 직수출이 감소한 반면 조명용기기(34.6%), 항행용 무선 수신기(13.8%)는 호조를 보임
 - 단, 가전제품은 헝가리, 폴란드 등 동유럽에서 현지생산체제가 구축되어 있어 직수출 비중은 낮음
 - 주력 수출품목인 무선전화기는 2011년 베트남으로 생산기지가 이전되면서 꾸준히 직수출이 감소하면서 발효 5년차에는 16.8% 감소
- (가죽/고무/신발) FTA 수혜품목 수출은 발효 4년차까지 회복세를 보였으나 5년차 -4.6% 감소
 - 주요 품목인 자동차 타이어(HS40111000) 수출이 4년차 대비 12.3% 감소한 반면 가황고무 제품의 수출은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남
 - 타이어 생산은 헝가리, 중국, 베트남 등 해외로 생산 설비가 이전된 한편 수요 확대에 발맞춰 현지 공장 증설이 이뤄지면서 향후 해외생산 비중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섬유/의류)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5년차에는 수혜품목 수출이 7.1% 증가
 - FTA 발효로 8%의 높은 관세가 철폐되면서 합성사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
 - 일본의 수출이 최근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한국에 비해 절대적인 규모가 작으며(4년차 기준 약 60%) 중국은 의류 수출이 중심인 구조임
- (농수산물식품) 수출 규모는 작지만 FTA 수혜품목 수출이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임
 - 발효 5년차 주요 수출 증가품목은 커피 조제품(88.1%), 라면을 포함한 인스턴트 면류(34.2%) 등임

〈 산업의 FTA 혜택별 對EU 수출 현황(EU의 수입)② 〉

		FTA 수혜품목(억 유로, %)				FTA 비수혜품목(억 유로, %)				전체(억 유로, %)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증가율	전기전자	36.5	34.8	37.2	24.6	24.7	22.8	29.3	19.0	61.2	57.5	66.5	43.6
	한국	6.8	-4.7	6.9	-1.7	-19.1	-7.8	28.9	-0.1	-5.4	-6.0	15.6	-1.0
	일본	-33.0	-3.7	9.3	8.0	25.2	-16.0	-3.6	0.5	-11.4	-10.2	3.0	4.6
	중국	2.4	5.3	15.1	14.5	-22.4	-12.4	18.7	9.7	-10.6	-2.8	16.5	12.5
	대만	-4.2	1.9	11.6	27.0	-9.6	7.7	19.4	20.2	-8.0	5.9	17.2	22.1
	전세계	-2.9	2.9	7.3	9.7	-11.4	-2.8	12.6	10.6	-6.3	0.7	9.3	10.1
증가율	무선전화기	-	-	-	-	21.5	22.9	13.1	7.7	21.5	22.9	13.1	7.7
	한국	-	-	-	-	57.7	6.4	-42.8	-16.8	57.7	6.4	-42.8	-16.8
	일본	-	-	-	-	567.9	43.7	2.4	3.6	567.9	43.7	2.4	3.6
	중국	-	-	-	-	12.0	4.0	36.6	41.9	12.0	4.0	36.6	41.9
	대만	-	-	-	-	-36.9	14.1	-54.4	-45.6	-36.9	14.1	-54.4	-45.6
	전세계	-	-	-	-	20.1	0.6	15.3	23.1	20.1	0.6	15.3	23.1
증가율	가죽/고무/신발	7.3	8.2	8.3	5.4	1.8	1.8	1.8	1.2	9.1	10.0	10.1	6.6
	한국	-10.3	12.5	1.6	-4.6	-17.8	-1.9	0.0	4.5	-11.9	9.6	1.3	-3.1
	일본	-17.7	-8.6	-1.8	-5.3	-9.3	-9.6	4.0	-2.0	-15.8	-8.9	-0.4	-4.5
	중국	-1.2	3.7	12.2	2.2	-33.3	9.0	19.6	-2.8	-1.7	3.7	12.2	2.2
	대만	-5.1	-1.6	4.0	0.1	28.8	-10.7	-12.8	-15.6	-0.5	-3.2	1.3	-2.2
	전세계	-1.0	6.4	6.7	6.4	-17.0	-7.5	-9.4	-3.5	-3.7	4.3	4.6	5.3
증가율	섬유/의류	11.9	12.2	12.9	8.8	0.0	0.0	0.0	0.0	12.0	12.2	12.9	8.8
	한국	6.3	2.0	6.2	7.1	-16.3	-7.5	8.0	-0.4	6.2	2.0	6.2	7.1
	일본	2.3	-3.9	5.1	10.3	-95.4	-8.1	-12.7	42.9	-12.5	-3.9	4.9	10.4
	중국	-6.1	3.2	11.7	1.3	-12.8	3.3	13.3	6.8	-6.2	3.2	11.7	1.3
	대만	-6.5	2.4	8.9	-0.9	34.0	-21.3	30.1	12.6	-6.4	2.3	9.0	-0.9
	전세계	-1.4	6.0	8.4	6.6	0.1	4.1	6.5	6.8	-1.4	6.0	8.4	6.6
증가율	농축수산물	1.3	1.5	2.1	1.7	0.4	0.3	0.4	0.2	1.7	1.8	2.4	1.8
	한국	10.6	12.8	36.7	36.0	8.7	-35.5	46.6	-36.6	10.2	1.7	38.1	23.1
	일본	-73.8	9.0	8.5	26.1	10.6	13.7	13.3	48.2	-66.3	10.4	10.0	32.7
	중국	-3.5	0.2	6.3	6.5	0.6	4.9	9.6	4.4	-2.1	1.9	7.5	5.7
	대만	1.5	-3.3	13.9	22.8	12.0	11.1	-16.1	19.0	3.1	-1.0	8.4	22.2
	전세계	3.4	2.0	2.7	5.7	8.0	-2.0	2.0	2.9	4.4	1.2	2.6	5.1

주: 전년동기비, WTO 산업분류 바탕 재분류
자료: Eurostat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산업의 FTA 혜택별 對EU 수출 현황(EU의 수입)③ 〉

		FTA 수혜품목(억 유로, %)				FTA 비수혜품목(억 유로, %)				전체(억 유로, %)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증가율	광물/금속	8.3	8.3	10.3	6.7	3.3	4.1	2.4	1.3	11.6	12.4	12.7	8.0
	한국	0.2	0.6	23.0	0.5	-14.7	23.6	-40.9	-15.9	-4.6	7.2	1.9	-2.6
	일본	-4.9	-6.2	1.9	12.0	-42.9	-43.3	36.1	22.5	-30.2	-26.4	16.3	17.1
	중국	-2.9	2.5	18.2	6.4	-14.1	3.0	5.8	-21.0	-5.0	2.6	16.1	2.1
	대만	-5.2	4.9	15.6	7.7	-14.9	42.2	-64.5	-16.7	-8.9	18.2	-18.9	2.2
	전세계	-1.6	2.8	7.7	0.9	-4.7	-19.1	-2.6	-12.2	-3.6	-11.0	1.8	-6.4
증가율	철강제품	3.7	3.7	4.5	3.3	16.5	15.7	18.3	13.6	20.2	19.4	22.8	16.9
	한국	-0.6	1.7	21.8	16.0	1.1	-5.1	16.6	17.5	0.8	-3.9	17.6	17.2
	일본	15.3	-24.1	5.3	5.2	-15.7	5.1	41.8	4.2	-11.0	4.1	28.7	4.6
	중국	-6.6	3.2	17.3	5.0	-8.4	20.5	-4.6	-27.3	-10.0	13.0	6.7	-9.0
	대만	-10.9	8.6	14.0	2.9	-11.8	-0.6	2.1	-5.4	-10.1	0.5	3.0	-3.6
	전세계	-4.7	3.7	5.7	1.2	-4.7	3.7	5.7	1.2	-11.8	-0.6	2.1	-5.4
증가율	석유제품	5.5	4.8	3.0	1.1	11.1	14.3	13.8	9.8	16.6	19.1	16.8	10.9
	한국	-30.9	-12.7	-36.8	-53.3	-13.7	29.3	-3.9	-9.5	-20.3	15.4	-12.2	-17.3
	일본	-88.9	14.2	22.6	-9.1	-27.3	203.1	-39.1	-55.7	-68.3	159.3	-32.8	-46.2
	중국	-29.6	63.0	-12.6	76.7	-12.7	-75.5	78.6	259.8	-15.9	-53.5	27.7	200.9
	대만	-84.2	-91.8	-41.3	146.7	-93.0	5290	-32.5	36.3	-86.6	682.6	-32.6	37.7
	전세계	-40.4	-5.5	-12.9	-19.1	57.1	-1.5	-20.1	-28.8	3.8	-2.8	-17.9	-25.7
증가율	목재/종이	0.3	0.3	0.4	0.4	1.1	1.4	1.6	1.1	1.5	1.7	2.0	1.6
	한국	1.3	-5.5	27.9	72.2	-22.2	24.7	14.7	7.6	-17.8	17.6	17.2	19.6
	일본	256.2	-21.0	-12.7	9.7	-23.8	-10.1	8.8	1.8	-6.4	-12.7	4.2	3.2
	중국	-6.8	7.6	19.5	7.5	-3.0	0.2	20.5	6.2	-3.5	1.1	20.4	6.4
	대만	-9.6	-12.6	12.4	-6.7	-0.7	-1.9	8.9	9.6	-3.4	-5.0	9.8	5.1
	전세계	-2.7	9.3	8.1	8.8	-2.7	1.7	4.1	4.9	-2.7	3.0	4.8	5.7
증가율	수송기기	1.6	0.8	0.3	0.4	0.4	0.5	0.5	0.4	2.0	1.3	0.8	0.7
	한국	-10.2	-50.9	-61.3	83.6	-24.2	30.1	-2.7	1.3	-13.4	-34.6	-37.8	30.2
	일본	-18.8	5.3	1.6	23.9	-27.9	-1.0	37.4	-20.0	-20.4	4.2	7.1	13.9
	중국	0.6	-4.2	34.6	24.6	13.5	13.2	23.2	5.0	2.3	-1.6	32.6	21.3
	대만	-0.4	-6.2	24.1	11.8	-2.1	5.0	11.0	13.7	-0.5	-5.8	23.5	11.9
	전세계	1.1	6.7	10.7	15.4	1.2	1.8	-2.4	6.3	1.1	6.3	9.6	14.7
증가율	항공기부품	1.2	1.6	3.2	3.2	0.0	0.0	0.0	0.0	1.2	1.6	3.2	3.2
	한국	20.1	29.6	104.8	74.9	-87.1	378.5	-59.3	-100	20.0	29.6	104.8	74.9
	일본	34.5	-12.5	26.5	0.9	-	-52.9	1.9	-42.5	34.6	-12.5	26.4	0.9
	중국	6.2	8.1	43.3	47.2	-33.0	31.2	148.8	-44.6	6.0	8.2	43.8	46.6
	대만	10.3	-3.6	45.6	14.9	-50.1	-7.8	867.0	-80.8	10.2	-3.6	46.1	14.8
	전세계	4.7	2.4	17.5	14.0	-22.3	16.9	33.0	-16.9	4.6	2.4	17.5	13.9
증가율	기타	11.2	11.3	11.7	8.4	22.1	17.5	17.2	9.9	33.3	28.8	29.0	18.3
	한국	-1.5	0.9	3.8	4.9	-3.7	-20.7	-1.6	-16.0	-2.9	-13.4	0.5	-7.6
	일본	-15.1	-13.8	0.1	8.6	-8.2	0.5	5.1	-6.8	-11.9	-7.0	2.7	0.2
	중국	-0.6	2.6	19.3	11.2	-4.9	4.7	14.0	15.6	-2.0	3.2	17.6	12.6
	대만	4.2	7.3	15.3	11.5	-2.4	12.9	20.7	14.2	0.9	10.0	18.0	12.9
	전세계	-1.1	2.0	11.0	10.2	-0.4	0.9	8.6	8.9	-0.7	1.4	9.7	9.5

주: 전년동기비, WTO 산업분류 바탕 재분류
 자료: Eurostat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2) 국가별 FTA 수출 성과 분석

① 주요 수출국(독일/영국/프랑스)

■ FTA 수혜품목 수출이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며 총 수출 증가세 전환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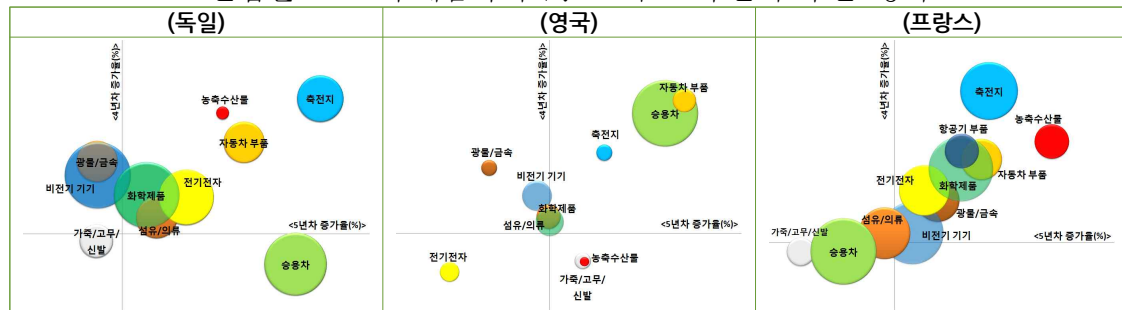
- (독일) 최근 축전지(40.0%), 자동차 부품(24.6%)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승용차(45.1%)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5년차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
 - 발효 이후 선박, 무선전화기, 철강제품 등 주요 비수혜 품목 수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며 4년차까지 총 수출이 지속 감소한 바 있음
- (영국) 재정위기에서 한 발 물러나 있던 영국으로의 수출은 발효 이후 꾸준히 호조를 보임
- (프랑스) 선박 수출 부진으로 총 수출이 감소세를 보였으나 축전지(58.0%), 항공기 부품(21.3%) 등 수혜품목 수출이 꾸준히 증가

〈 FTA 혜택별 對EU 주요 수출국 수출 증가율(주요 수출국의 對韓 수입) 〉
(단위 : 억 유로, %)

		발효 전	1년차 (‘11.7.~’12.6.)		2년차 (‘12.7.~’13.6.)		3년차 (‘13.7.~’14.6.)		4년차 (‘14.7.~’15.6.)		5년차 (‘15.7.~’16.2.)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독일	수혜	29.6	34.7	17.1	33.4	-3.8	33.8	1.3	38.0	12.6	24.5	8.5
	비수혜	62.5	42.5	-32.0	35.2	-17.2	32.6	-7.3	26.4	-18.9	18.5	-2.6
	전체	92.1	77.2	-16.2	68.5	-11.2	66.4	-3.1	64.5	-2.9	43.0	3.7
영국	수혜	13.2	16.4	23.9	19.8	20.7	21.4	8.2	25.9	21.2	16.4	20.6
	비수혜	13.5	15.1	11.9	14.3	-5.3	18.9	31.6	29.1	53.9	14.5	-12.7
	전체	26.7	31.5	17.9	34.1	8.2	40.3	18.0	55.0	36.5	30.9	5.0
프랑스	수혜	10.9	12.2	12.0	12.2	-0.4	12.5	2.6	13.7	9.4	8.4	9.6
	비수혜	13.4	21.0	56.7	16.3	-22.2	11.7	-28.4	7.9	-32.6	5.9	26.5
	전체	24.3	33.2	36.6	28.5	-14.2	24.2	-15.1	21.6	-10.9	14.2	16.5

주: 전년동기비
자료: Eurostat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산업별 FTA 수혜품목의 對EU 주요 수출국 수출 성과 〉



주: 원의 크기는 해당 국가에 대한 총 수출 중 각 품목 수출액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냄
자료: Eurostat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② 주요 투자국(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

■ EU 현지생산 체제의 거점인 동유럽권에 대한 수출은 발효 초기 수요 감소로 원부자재 수출이 부진을 겪었으나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체코/슬로바키아) EU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자동차 수요가 확대되면서 생산 거점인 체코와 슬로바키아로의 자동차부품(수혜품목) 수출이 증가
- (헝가리)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전기전자제품 수출이 감소(-11%)하였으나 비수혜품목 수출이 증가하면서 총 수출은 6.1% 증가

〈 FTA 혜택별 對EU 주요 투자국 수출 증가율(주요 투자국의 對韓 수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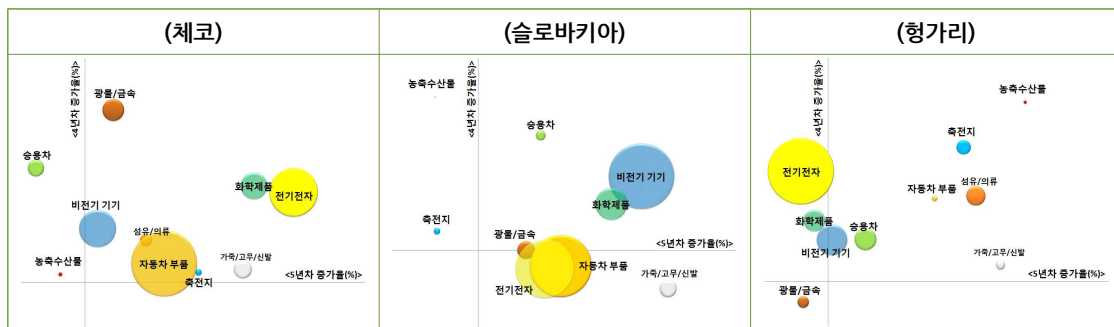
(단위 : 억 유로, %)

		발효 전	1년차 (‘11.7.~’12.6.)		2년차 (‘12.7.~’13.6.)		3년차 (‘13.7.~’14.6.)		4년차 (‘14.7.~’15.6.)		5년차 (‘15.7.~’16.2.)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체코	수혜	9.5	17.9	88.2	14.2	-20.4	14.4	1.5	17.3	19.8	10.9	36.9
	비수혜	1.2	1.5	18.7	2.0	37.5	0.9	-54.1	1.8	91.4	1.0	26.8
	전체	10.7	19.3	80.2	16.2	-16.0	15.4	-5.3	19.1	24.1	11.8	36.0
슬로바키아	수혜	26.5	19.9	-24.7	20.8	4.2	21.9	5.3	22.4	2.6	14.5	25.0
	비수혜	8.1	12.7	55.5	18.3	44.3	12.9	-29.6	12.4	-3.5	8.7	-34.0
	전체	34.6	32.6	-5.9	39.0	19.8	34.7	-11.1	34.9	0.4	23.2	2.8
헝가리	수혜	8.4	5.9	-29.8	6.6	12.7	5.6	-15.4	7.8	39.2	5.2	-0.5
	비수혜	8.1	4.1	-49.0	2.0	-51.4	1.7	-17.6	3.4	104.8	2.0	23.7
	전체	16.5	10.0	-39.3	8.7	-13.7	7.3	-15.9	11.2	54.1	7.2	6.1

주: 전년동기비

자료: Eurostat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산업별 FTA 수혜품목의 對EU 주요 투자국 수출 성과 〉



주: 원의 크기는 해당 국가에 대한 총 수출 중 각 품목 수출액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냄

자료: Eurostat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③ 재정위기국(그리스/스페인/이탈리아)

■ 재정위기 이후 회복국면에 접어든 스페인, 이탈리아에 대한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선박 비중이 높은 그리스로의 수출은 큰 폭의 증감을 반복

- (스페인) 2014년 구제금융 졸업 이후 화학제품(43.5%), 승용차(19.0%) 등 주요 수혜품목 수출이 FTA에 힘입어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이탈리아) 2015년 경제성장률이 0.7%를 기록하며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경기 회복세에 접어들면서 승용차(156.7%) 등 수출 회복이 가시화

〈 FTA 혜택별 對EU 재정위기국 수출 증가율(재정위기국의 對韓 수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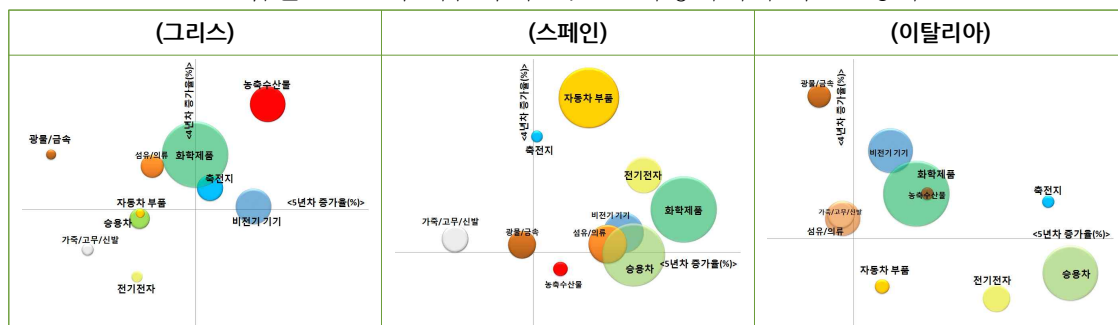
(단위 : 억 유로, %)

		발효 전	1년차 (‘11.7.~’12.6.)			2년차 (‘12.7.~’13.6.)		3년차 (‘13.7.~’14.6.)		4년차 (‘14.7.~’15.6.)		5년차 (‘15.7.~’16.2.)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그리스	수혜	1.5	2.0	32.1	2.2	10.4	1.4	-35.6	1.9	34.3	1.2	1.2	
	비수혜	11.1	13.4	20.3	9.6	-28.2	17.1	78.7	3.4	-80.4	1.0	1,090.4	
	전체	12.6	15.4	21.7	11.8	-23.2	18.6	57.3	5.3	-71.6	2.2	504.1	
스페인	수혜	9.9	12.7	28.7	10.8	-15.0	10.6	-2.3	15.5	46.3	9.4	22.6	
	비수혜	4.6	3.5	-24.1	3.8	8.3	4.0	4.9	3.5	-13.4	2.2	48.6	
	전체	14.5	16.2	11.9	14.6	-10.0	14.6	-0.4	18.9	29.9	11.6	27.5	
이탈리아	수혜	14.4	15.6	8.1	13.9	-10.9	14.3	2.5	15.7	10.3	9.4	33.1	
	비수혜	21.7	12.7	-41.5	11.1	-12.5	8.3	-25.8	12.1	46.6	7.1	26.1	
	전체	36.2	28.3	-21.7	25.0	-11.6	22.5	-10.1	27.8	23.6	16.6	30.1	

주: 전년동기비

자료: Eurostat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산업별 FTA 수혜품목의 對EU 재정위기국 수출 성과 〉



주: 원의 크기는 해당 국가에 대한 총 수출 중 각 품목 수출액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냄

자료: Eurostat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3) FTA 활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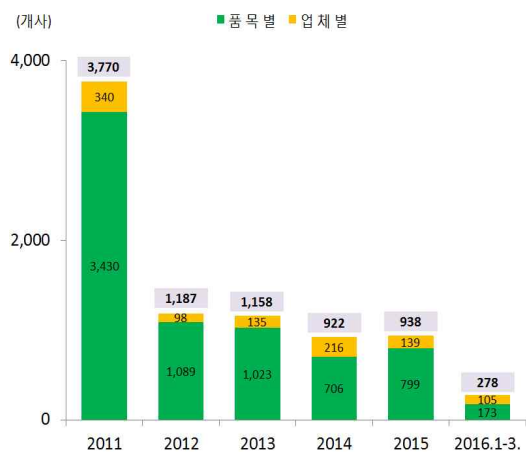
- 한·EU FTA 수출 활용률은 80% 이상의 안정적인 성과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85.3%를 기록해 전체 FTA 중 가장 높은 활용률을 기록함
- 한·EU FTA가 발효된 2011년 수출 활용률은 65.7%에 그쳤으나 2012년 81.4%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80% 이상을 유지 중임
- 수입 활용률은 2011년 47.1%에서 지난해 71%까지 상승하였음
- 한·EU FTA를 활용하기 위해 인증수출자³⁾로 지정 받은 기업수도 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업계의 높은 활용률을 반영
- 발효 직후인 2011년 3,770개사가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이후 최근까지 매년 약 1,000개사가 인증수출자로 새로 지정되었음(갱신 포함)
 - 발효 당시 인증 유효기간은 업체별 인증 시 3년, 품목별 인증 시 2년이었으나 2015년 이후 업체별, 품목별 모두 5년으로 연장되어 갱신 부담이 완화됨

〈 협정별 FTA 활용률 〉
(단위 : %)

	수출			수입		
	2013	2014	2015	2013	2014	2015
EU	85.6	85.3	85.3	68.6	66.8	71.0
미국	77.0	76.2	79.1	68.3	66.0	67.5
칠레	78.9	80.5	80.7	98.5	98.3	98.8
EFTA	80.3	79.6	80.4	41.8	41.6	43.7
아세안	36.4	37.0	42.5	74.1	73.8	75.4
인도	43.2	56.3	62.4	61.4	67.0	73.1
페루	91.9	90.5	83.6	97.9	89.2	90.6
터키	69.4	72.7	79.1	69.4	64.4	69.1
호주	-	-	69.7	-	-	63.5
캐나다	-	-	79.9	-	-	61.2

주: 수출활용률은 수출통관시 신고자료에 근거한 추정치
자료: 관세청

〈 연도별 인증수출자 지정 현황 〉



주: 인증 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업체수를 포함한 수치
자료: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3) 건당 6,000유로 초과 수출자의 경우 한·EU FTA 활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 지정이 필요하며 업체단위 또는 품목단위로 지정받을 수 있음.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을 경우 원산지 증명서 발급 서류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국가별) EU 회원국 중 수출 상위 10개국에 대한 수출활용률이 모두 80% 이상을 기록 중이며 주요 투자국인 체코로의 수출 활용률이 4년차 기준 96%로 가장 높음

■ (품목별) 플라스틱/고무/가죽, 기계, 섬유 등의 FTA활용률이 평균을 상회하며 FTA 활용을 주도하는 것으로 나타남

- 타이어를 포함하는 고무제품의 활용률이 98.2%로 높은 수준을 기록
- 기계류의 FTA 활용률은 4년차 89%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99.4%) 및 자동차 부품(94.3%)의 높은 활용률에 기인
- 최근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건전지 및 축전지도 96.8%의 활용률을 보여 FTA가 수출 확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 對EU 축전지 수출동향(MTI 8352, 억 달러): 3.2('12) → 5.1('13) → 6.7('14) → 8.8('15)

- 수출 규모는 작지만 농림수산물의 활용률도 1년차 46%에서 4년차 77%까지 확대되어 FTA가 다양한 산업의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품목별 수출활용률 〉

(단위 : %)

품목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농림수산물	46	51	60	77
광산물	78	88	76	78
화공제품	78	77	76	80
플라/고무/가죽	85	89	92	92
섬유류	79	86	88	88
생활용품	59	76	80	72
철강·금속	63	64	75	75
기계류	86	90	90	89
전자전기	70	76	79	81
잡제품	59	59	77	75

자료: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2015.7.)

〈 EU 주요국별 수출활용률 〉

(단위 : %)

국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독일	81	88	87	87
영국	73	83	82	81
네덜란드	89	90	94	92
슬로바키아	85	85	87	89
폴란드	85	88	88	86
이탈리아	92	96	95	93
프랑스	76	76	79	81
벨기에	75	83	85	83
스페인	83	84	85	88
체코	96	89	91	96

자료: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2015.7.)

(4) 업계가 바라본 한-EU FTA 5년

- 한-EU FTA 발효 5주년을 맞아 지난 5년간 한-EU FTA에 대한 업계의 평가와 영향을 파악하고자 對EU 수출 177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설문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무역업체 대상으로 랜덤(random) 표본 추출
- 유효표본 : EU 수출업체 177개사
- 조사기간 : 2016년 6월 20일~6월 24일
- 조사방법 : 구조화 된 질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Web Survey)

- 응답업체 177개사 가운데 89.8%가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다수인 우리나라 기업 분포에 부합하며 업종별 분포는 주요 수출품목인 기계, 화학, 전기전자의 비중이 높음

〈 업종별 비중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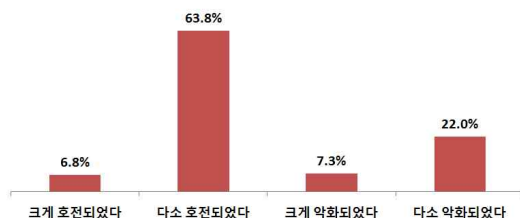
업종	농수산물	석유제품	화학, 플라스틱, 요업	가죽, 섬유, 의복	생활용품, 뷰티, 화장품
비중	5.1	1.1	13.6	8.5	11.3
업종	철강 및 비철금속	기계, 선박	자동차, 부품	전기, 전자	의료, 정밀, 광학기기
비중	7.3	25.4	5.1	14.7	7.9

- 한-EU FTA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응답기업의 68.4%는 지난 5년간 FTA가 기업 경영 및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
- 특히 지난 5년간 EU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對EU 수출여건이 비교적 호전된 것(70.6%)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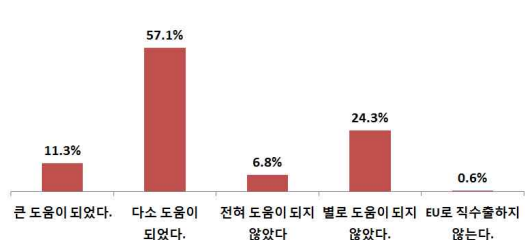
〈 최근 5년간 對EU 수출여건 변화 〉

(N=177)



〈 한-EU FTA 만족도 〉

(N=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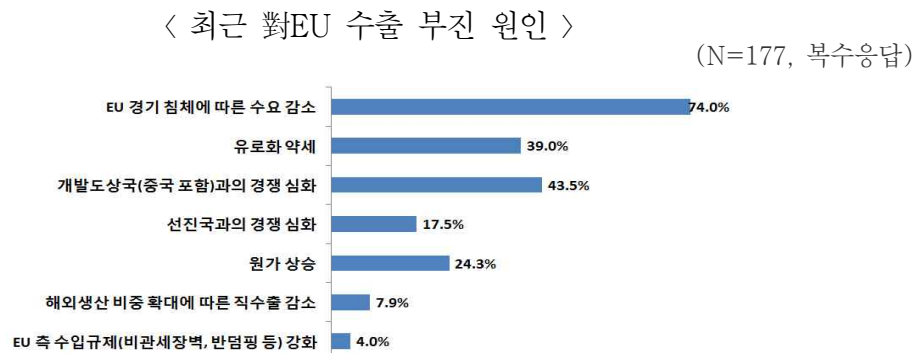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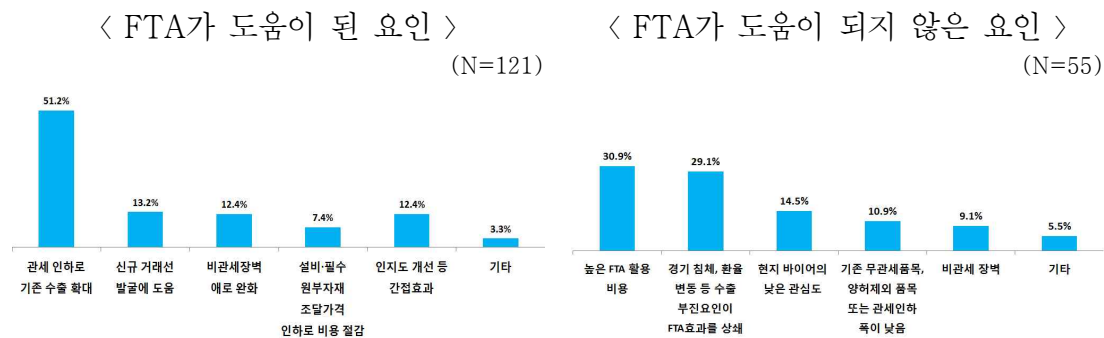


■ FTA가 도움이 된 요인으로 관세인하 효과로 수출이 확대되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관세인하로 기존 수출이 확대(51.2%), 신규거래선 발굴에 도움(13.2%) 등 관세인하 효과가 수출로 이어졌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그 외에도 비관세장벽 애로 완화(12.4%), 인지도 개선을 포함한 간접효과(12.4%) 등 관세 외 분야에서도 FTA가 수출환경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

■ 반면 FTA가 도움이 되지 않은 요인으로 FTA 활용 애로와 EU 경기 침체에 의해 FTA 효과가 상쇄되었다는 답변이 많았음

- 전반적인 FTA 활용 애로로 자주 지목되는 인력부족, 사후검증, 원산지 관리 등 FTA 활용에 따른 비용이 높다는 답변이 30.9%로 가장 높았음
- EU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감소, 환율절하 등 경기적 요인으로 FTA 효과가 상쇄되었다는 응답 비중도 29.1%를 기록해 FTA 발효 이후 맞물린 EU의 대외 여건 변화가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



3. 한-EU FTA 이후 수입 현황

■ 한-EU FTA 발효 5년차 對EU 수입은 올해 5월까지 4년차 대비 10% 감소한 495.2억 달러 기록

- 전체 수입 감소에는 상위 수입품목인 나프타(-26.5%), 반도체 제조용 장비(-22.9%), 집적회로반도체(-34.6%) 등 FTA와 무관한 품목의 감소 영향이 컸음
 - 원유 수입은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발효 4년차에 수입액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발효 5년차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승용차, 의약품 등의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의류, 주류 등 소비재 수입이 발효 이후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
- 육류 수입은 발효 이후 5년차까지 연평균 19.8% 증가

〈 한-EU FTA 이후 주요 품목별 對EU 수입현황 〉

(단위 : 억 달러, %)

품목명 ¹⁾	발효 전	4년차 (14.7.~15.6.)		5년차 (15.7.~16.5.)		5년간 연평균 ²⁾	품목명	발효 전	4년차 (14.7.~15.6.)		5년차 (15.7.~16.5.)		5년간 연평균 ²⁾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증가율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증가율
승용차	24.2	71.1	44.6	69.4	7.2	33.6	가축육류	5.0	7.5	64.0	6.2	-12.8	19.8
의약품	19.7	23.9	4.5	22.4	3.6	4.8	가죽제 가방	3.5	6.6	10.6	5.9	-3.7	16.0
반도체제조용장비	24.3	20.6	-8.7	14.3	-22.9	-5.0	기타 석유화학제품	5.1	6.5	10.7	5.5	-7.2	7.2
자동차부품	16.3	16.3	-5.7	14.1	-6.5	-1.1	화장품	4.5	5.7	4.6	5.4	3.3	5.9
기타 정밀화학원료	13.3	13.8	-9.3	11.8	-6.2	-1.2	배전 및 제어기	3.6	6.4	9.4	5.2	-8.1	14.6
원유	0.0	10.4	-65.2	11.0	41.7	-	선박용 부품	5.9	6.0	19.0	5.0	-13.7	4.1
나프타	4.6	15.3	-16.9	10.3	-26.5	22.5	발전기	1.3	4.9	78.7	4.6	-0.3	46.8
펌프	11.0	13.0	-3.8	10.2	-13.5	2.6	기타 산업기계	3.4	5.4	-7.6	4.5	-11.7	8.2
원동기	10.5	10.9	-28.2	10.1	1.6	-5.7	기타 화학공업제품	4.4	5.0	8.9	4.2	-8.0	4.4
계측기	6.5	9.5	-5.8	8.9	4.9	6.6	화물자동차	2.1	3.1	26.7	4.0	37.6	13.0
합성수지	7.0	10.3	14.5	8.7	-8.3	11.1	운반하역기계	4.4	4.8	-16.7	4.0	-11.4	-1.6
밸브	4.1	11.0	-3.1	7.7	-24.3	21.1	기타 섬유제품	4.1	4.4	2.1	3.8	-7.6	1.9
집적회로반도체	10.1	11.9	-0.7	7.3	-34.6	3.2	직물제 의류	2.3	3.9	12.4	3.6	2.2	14.1
기타 기계류	6.8	7.6	7.8	6.2	-12.3	3.8	주류	3.1	3.8	5.6	3.5	0.6	5.4
기타 정밀화학제품	5.4	6.8	-4.6	6.2	-1.5	3.7	전체	433.9	604.0	0.7	495.2	-10.0	7.0

주: 1) MTI 4단위 기준,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2) 4년차 증가율을 바탕으로 추정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1) 승용차

■ FTA 관세 인하 효과와 수입 자동차 선호 확대로 한-EU FTA 발효 이후 승용차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

- 발효 이후 4년차까지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체 對EU 수입 증가를 주도해왔으며 발효 5년차인 올해 5월까지 4년차 대비 7.2% 증가한 69.4억 달러가 수입되었음
- EU산 승용차의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은 발효 전에 비해 4.7%p 증가한 76.3%를 기록하였으며 독일산의 비중이 가장 높음
 - 독일산 차량의 점유율이 발효 전 대비 -5.5%p 감소한 반면 영국으로부터의 승용차 수입이 급증하면서 영국산 차량의 점유율은 3.4%p 상승
- 특히 발효 6년차가 시작되는 올해 7월 1일부터 1,5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어 향후 수입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 우리나라는 對EU 승용차 수입에 대해 중대형(1,500cc 초과) 차량은 2014.7.1.일부터 무관세를 적용 중이며, 소형(1,500cc 이하) 및 하이브리드 차량은 2016.7.1일부터 무관세 적용

〈 승용차의 對EU 수입 동향 〉

(단위 : 억 달러, %)

수입국	금액												점유율		
	발효 전 (10.7.~11.6)		1년차 (11.7.~12.6)		2년차 (12.7.~13.6)		3년차 (13.7.~14.6)		4년차 (14.7.~15.6)		5년차 (15.7.~16.5)		발효 전 (a)	5년차 (b)	변화 (b)-(a)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	%	%p
EU	24.2	57.2	27.2	12.6	34.5	26.6	49.2	42.7	71.1	44.6	69.4	7.2	71.5	76.3	+4.7
독일	20.9	59.1	23.4	11.6	29.1	24.7	39.9	36.8	54.5	36.7	51.3	2.6	61.9	56.4	-5.5
영국	1.7	104.8	2.1	25.1	2.6	24.1	3.9	50.5	6.7	73.9	7.5	25.6	4.9	8.3	+3.4
프랑스	0.5	81.8	0.6	9.1	0.6	-2.8	0.7	24.9	1.1	60.7	1.1	8.7	1.6	1.2	-0.4
미국	3.3	67.1	4.7	43.8	7.5	58.6	8.0	6.7	11.2	39.9	13.4	33.3	9.8	14.7	+5.0
일본	4.8	-4.4	4.3	-11.0	5.8	36.4	9.7	66.8	7.6	-21.5	6.0	-15.2	14.2	6.6	-7.6
전세계	23.8	44.5	37.8	11.9	49.5	30.8	69.2	39.9	92.1	33.0	91.0	8.4	100.0	100.0	-

주: MTI 7411 기준, 증가율은 전년동기비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2) 농축수산물

- 발효 5년차 EU산 농축수산물 수입 물량은 4.1% 증가하였으나 수입 단가 하락으로 수입액은 4년차 대비 5.6% 감소한 30.3억 달러 기록
- 주요 수입품목인 돼지고기는 국내 도축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입단가가 지속 하락하여 수입량은 3.9% 증가, 수입액은 12.8% 감소
 - * 국내 돼지 도축두수(만 마리): 1,523('14) → 1,550('15) → 412('16.Q1)
 - * EU산 돼지고기 수입단가(\$/kg): 3.20('14) → 2.80('15) → 2.60('16.Q1)
- EU 내 생산량이 증가한 치즈도 수입단가 하락의 영향으로 도입 물량이 4년차 대비 56.5% 증가
- 옥수수는 미국산에서 EU산으로 수입선이 전환되면서 수입이 급증했으나 지난해 4분기부터 브라질산, 러시아산 수입이 이를 대체하여 최근 수입이 감소
- 과실류, 주류 등 소비자의 선호가 반영되는 식품의 수입은 발효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임
- 과실류는 발효 4년차까지 연평균 40.6%씩 성장한 가운데 주로 스페인으로부터 수입되는 오렌지는 발효 5년차에 18% 증가
- 발효 즉시 15%의 관세가 철폐되면서 초기에 수입이 급증한 와인에 이어 맥주 수입은 30% 관세가 8단계에 걸쳐 인하되면서 발효 5년차 기준 37.7%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최근 주류 수입을 주도
- 국내 생산이 이뤄지지 않는 일부 품목의 수입 증가는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수입제품 간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 후생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한-EU FTA 이후 주요 농축수산물의 對EU 수입현황 〉

(단위 : 백만 달러, 만 톤, %)

품목명 ¹⁾	금액						중량					
	발효 전	4년차 (14.7.~15.6.)		5년차 (15.7.~16.5.)		4년간 연평균 ²⁾	발효 전	4년차 (14.7.~15.6.)		5년차 (15.7.~16.5.)		4년간 연평균 ²⁾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증가율	중량	중량	증가율	중량	증가율	증가율
농축수산물	2,313.7	3,476.8	10.7	3,032.3	-5.6	10.7	163.6	221.5	-8.6	208.7	4.1	7.9
농산물	1,246.0	1,715.3	-1.8	1,509.5	-4.3	8.3	118.0	138.3	-20.0	128.8	3.7	4.1
곡류	83.0	36.6	-66.5	24.4	-22.7	-18.5	31.8	15.6	-55.0	11.2	-15.4	-16.4
옥수수	83.0	35.1	-67.8	22.7	-25.1	-19.3	31.8	15.3	-55.8	10.8	-16.9	-16.8
과실류	2.2	8.7	53.0	14.3	108.8	40.6	0.0	0.3	45.8	0.3	2.6	58.7
오렌지	0.3	2.2	76.4	2.5	18.0	61.0	0.03	0.2	90.0	0.23	10.0	62.2
기타식물성유지	111.9	134.4	15.0	115.6	-8.1	4.7	3.8	4.3	25.6	3.8	-4.7	3.0
박류	2.7	3.7	101.4	1.0	-70.2	8.3	0.6	1.0	199.6	0.2	-82.1	14.3
사료	152.2	245.2	-27.4	201.4	-9.9	12.7	52.9	71.5	-25.8	65.6	1.8	7.8
소스류	4.2	10.1	0.9	7.6	-19.1	24.9	0.1	0.3	11.2	0.2	-15.3	19.5
초콜릿	54.5	103.0	14.2	91.1	-9.2	17.2	0.6	1.2	12.5	1.2	-2.0	18.5
주류	311.8	383.4	5.6	353.1	0.6	5.3	6.1	10.9	13.7	13.1	33.8	15.8
맥주	19.4	55.8	20.5	68.1	37.7	30.2	2.2	6.5	25.2	8.7	50.9	30.7
와인	66.8	102.6	-0.0	98.3	2.1	11.3	1.3	1.8	4.0	2.0	21.2	7.4
위스키	205.8	191.8	6.9	158.9	-9.5	-1.8	2.0	1.9	11.7	1.8	2.9	-0.8
음료	46.7	105.3	9.5	96.1	-1.1	22.6	1.9	5.0	22.7	4.7	3.3	27.3
물	14.0	33.6	2.1	29.1	-4.4	24.5	1.3	3.2	11.6	2.9	0.1	24.5
과일주스	10.0	23.7	27.9	23.5	7.2	24.1	0.3	1.1	72.7	1.2	12.0	34.5
육류	517.7	772.2	60.8	635.7	-12.8	10.5	17.3	25.1	58.7	24.4	3.5	9.7
돼지고기	498.7	749.9	64.0	617.7	-12.8	10.7	16.4	24.0	61.7	23.4	3.9	9.9
닭고기	10.1	15.4	-8.0	13.6	-4.2	11.2	0.5	0.8	7.9	0.8	2.2	14.1
로알제리	29.5	43.9	-12.4	44.3	11.7	10.4	0.7	0.8	-1.5	0.8	11.1	5.3
낙농품	215.7	370.6	19.5	335.7	-2.2	14.5	5.9	8.4	32.9	9.2	18.8	9.5
분유	29.6	63.1	9.3	53.3	-7.4	20.9	0.7	1.0	12.7	0.9	-3.5	10.9
치즈	51.7	132.2	66.4	151.5	22.7	26.4	0.8	2.4	128.7	3.6	56.5	31.0

주: 1) MTI 전 단위 기준 주요 수입품, 전년동기비

2) 발효 1~4년차 기간의 연평균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III. 브렉시트(Brexit)에 따른 영향

1. 세계 경제 및 EU에 미치는 영향

■ 브렉시트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될 경우 세계 경제 및 EU,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경기 둔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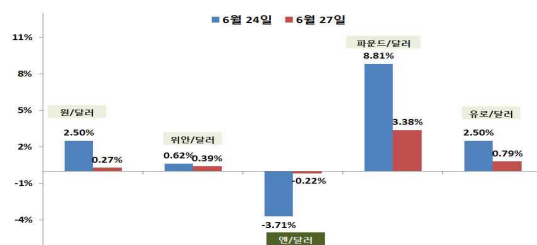
- 브렉시트 탈퇴 가시화 이후 안전자산 선호가 확대되면서 달러·엔화는 강세, 파운드화·유로화는 약세를 보였으며 주요 증시는 대체로 하락세를 모임

〈 주가 변동 추이 〉

	6월 27일	6월 24일	증감률
미국 Dow	17,140	17,401	-1.5%
유로 Stoxx	289	299	-3.5%
영국 FTSE100	5,982	6,139	-2.5%
한국 KOSPI	1,927	1,925	0.1%

주: 전일비
자료: Bloomberg

〈 브렉시트 결정 이후 환율 변동〉



주: 전일비
자료: Bloomberg

- 금융시장 불안이 구매력 저하, 투자 위축 등 실물경제로 전이될 경우에 대비해 주요 기관은 세계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에서 0.1~0.3%p까지 하향 조정
-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EU 경제도 다시 위축될 우려가 있음
 - 유로화 평가 절하, EU 대외무역 축소, 추가 탈퇴에 따른 불안이 나타나면서 재정위기 회복세를 보이는 EU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됨
 - 주요 기관에서는 브렉시트 영향으로 올해 EU의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한 가운데 OECD는 2018년까지 유로존의 경제성장률이 1.1%p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주요 기관별 브렉시트 이후 세계 및 주요국 경제성장률 전망 〉

지역	기관	전망	지역	기관	전망
세계	IMF	올해 3.2%(4월 전망)	일본	미쓰호종합연구소	0.3~0.8%p 감소
	모건 스탠리	2.7~2.8%(3%에서 하향조정)		미쓰비시UFJ	0.34~1.11%p 감소(2018년)
	골드만삭스	올해 3.1%(3.2%에서 하향조정)		모건스탠리	
유로존	OECD	1.1%p 감소(2018년)	미국	도이체뱅크	0.4%p 감소(1년간)
	골드만삭스	올해 1.5%(2.0%에서 하향조정)			1.5%p 감소(3년간)

자료: 각 기관별 전망 취합

■ (영국경제) 브렉시트 현실화로 파운드화가 평가 절하되고 수출 및 투자가 감소하면서 EU 잔류 대비 실질 GDP는 단기 1.0~2.5%, 중장기 0.1~7.7% 후퇴할 전망

- 파운드화 평가 절하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실질임금 감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구매력 하락으로 수입수요 감소 우려
- 영국 재무부도 비교적 통합 정도가 높은 EEA 협정 체결 시 GDP가 3.8% 감소하고 별도의 무역·투자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 WTO 최혜국 대우 시에는 7.5% 감소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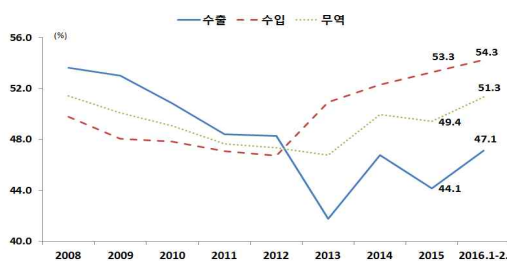
〈 주요 기관별 브렉시트 이후 영국 경제 전망(EU 잔류 대비 GDP증감) 〉

기관	전망	기간	기관	전망	기간
크레딧 스위스	-1.0%~-2.0%	탈퇴 후 2년	BNP Paribas	-0.5~-2.5%	장기
모건 스탠리	-1.5~-2.5%	탈퇴 후 2년	영국 재무부	-3.8~-7.5%	2030년 까지
IMF	-1.5~-5.6%	2019년 까지	OECD	-3.3% -2.7~-7.7%	2020년 까지 2030년 까지
Oxford Economics	-0.1~-3.9%	장기	PwC	-3.0~-5.5%	2020년 까지

자료: 각 기관별 전망 취합

- 무역과 투자는 향후 EU 시장 접근에 제한이 생길 경우 축소될 가능성이 높음
 - 역내 무역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영국 무역구조의 특성 상 탈퇴 이후 EU에 대한 무역장벽이 다시 생길 경우 전체 수출입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음
 - EU 탈퇴로 역내 모자(母子)회사간 수익배분 시 적용되던 세금 면제 등 역내국으로서의 혜택이 사라지면 EU 시장을 겨냥한 對영국 역외 투자 기업들의 이탈은 가속화될 전망

〈 영국의 對EU 무역 비중 〉



자료: Eurostat

〈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수출 변화 전망 〉

	對EU : MFN 적용	對EU : FTA 체결
총수출	-8.1%	-6.4%
중간재	-8.4%	-6.4%
자본재	-6.1%	-5.6%
최종소비재	-8.2%	-6.9%

주: EU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MFN 적용을 가정
자료: 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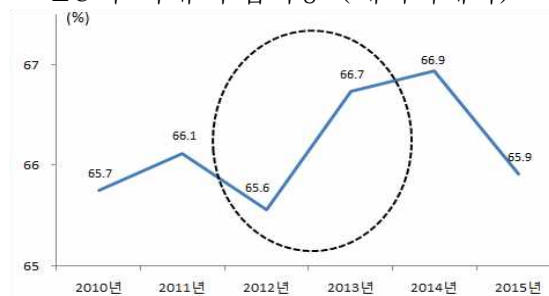
2. 한국의 對EU 수출 영향

■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에 따른 EU내 소비 위축과 파운드·유로화 약세의 영향으로 우리의 對EU 수출이 둔화 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유로존 재정위기시와 유사하게 향후 1~2년간 EU의 역외 수입 비중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
- 2012년에는 그리스 등의 교역 급감으로 EU역내수입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나, 2013~2014년에는 역내 수입비중이 상승하였으며 재정위기에서 벗어난 2015년에 역내 수입비중이 다시 하락함

* 역내비중 : 66.1%('11) → 65.6%('12) → 66.7%('13) → 66.9%('14) → 65.9%('15)

< EU의 역내 수입비중 (에너지제외) > < EU의 역내수입비중 (원유만 제외) >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자료 : 한국무역협회(K-stat)

■ 가공단계별로는 중간재와 소비재의 역외수입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

- 2012~2014년중 소비재와 중간재의 역내수입 증가율이 역외수입 증가율을 상회했으나 2015년에는 역외수입이 역내수입을 상회

< EU 가공단계별 역내외 수입 현황 >

(단위 : 억 유로, %)

품목명 ¹⁾	역내 수입						역외 수입					
	2011년		2014년		2015년		2011년		2014년		2015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차 산품	2,963	0.8	3,031	-1.6	2,982	-1.6	4,943	-2.9	4,529	-18.5	3,693	-18.5
자본재	3,564	1.4	3,721	10.7	4,118	10.7	2,327	2.2	2,482	18.8	2,949	18.8
소비재	6,257	2.6	6,766	9.7	7,419	9.7	2,874	2.6	3,109	14.4	3,555	14.4
중간재	13,395	-0.6	13,155	1.5	13,357	1.5	6,550	-1.9	6,174	5.9	6,540	5.9
부품	4,212	0.5	4,282	6.8	4,575	6.8	2,003	-1.3	1,925	16.2	2,237	16.2
반제품	9,183	-1.1	8,873	-1.0	8,782	-1.0	4,546	-2.2	4,250	1.3	4,303	1.3
기타	959	15.8	1,489	11.0	1,652	11.0	833	0.0	833	-3.6	803	-3.6
전체	27,139	1.2	28,161	4.9	29,527	4.9	17,527	-0.8	17,126	2.4	17,539	2.4

주: UN의 가공단계별(BEC) 분류코드를 기준으로 연계

■ 한국의 경우 반도체, 철강, 금속 등의 중간재의 수출 둔화 가능성이 있으며, 소비재의 경우에는 자동차, 영상기기, 섬유제품, 도자기 등에서 수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중간재) 對EU 수출 6~7위 품목에 해당하는 철강판(6위), 반도체(7위)를 비롯하여 원동기펌프(11위), 정밀화학원료(21위)의 현지 수입수요 감소로 한국의 對EU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

● (소비재)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를 비롯하여 영상기기(22위), 전자응용기기(25위), 섬유제품(63위)의 수출둔화 가능성이 있음

－ 다만, 자동차 등의 경우 엔화강세의 영향으로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출둔화 영향이 적을 가능성이 있음

※ 선정기준 : 2012~2014년중 역외수입 증가율이 역내수입을 상회, 2015년중 역외수입 증가율이 역내수입을 상회한 품목

〈 한국의 對EU의 수출 영향 예상 품목(수입증감률) 〉

(단위 : %)

품목명	EU 역내수입 (2012~2014년)	EU 역외수입 (2012~2014년)	EU 역내수입 (2015년)	EU 역외수입 (2015년)	한국의 對EU 수출순위
자동차	1.8	0.0	17.2	31.6	1
철강판	-4.4	-7.2	0.3	11.4	6
반도체	-10.1	-16.1	6.9	17.5	7
원동기펌프	0.9	-2.8	4.9	12.2	11
정밀화학원료	-0.5	-2.2	6.4	11.7	21
영상기기	-9.3	-12.7	-0.2	5.1	22
전자응용기기	3.4	2.0	8.4	15.4	25
광학기기	6.0	-1.2	-1.6	11.9	36
합금철/선철/고철	-9.1	-10.4	-12.7	-5.5	58
섬유제품	4.6	2.4	7.1	10.5	63
동제품	-6.2	-11.3	-1.5	3.9	64
기호식품	1.0	-1.2	5.4	8.8	67
가구	2.7	1.6	8.7	15.6	68
안경	6.0	4.7	9.4	18.4	76
기타전자부품	1.1	-1.1	7.5	12.8	82
연제품	0.2	-11.9	-2.9	39.1	90
신발	5.9	4.4	9.3	16.2	95
타일·도자기	1.4	-1.8	6.7	12.5	96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3. 브렉시트와 한·영 FTA 추진

(1) 한·영 FTA 추진 가능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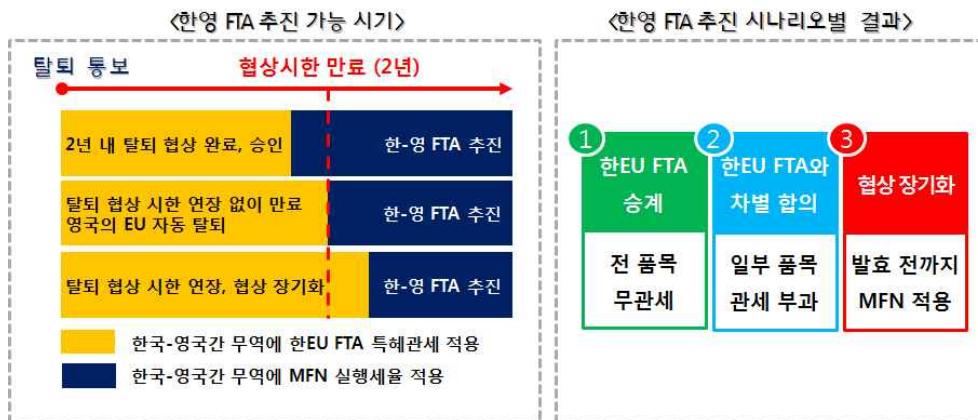
-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서 영국이 기존 EU 차원에서 체결했던 양자간 FTA 상대국들과 재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와 내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
- 영국이 EU로부터 완전히 탈퇴하기 전까지는 EU법에 구속되기 때문에 탈퇴 통보 후 EU와의 협상을 거쳐 또는 자동으로 탈퇴되기 이전까지 새로운 무역협상을 개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됨
- 한편, 한·EU FTA를 비롯해서 영국이 EU 차원에서 체결했던 FTA는 영국-EU간 탈퇴 협상이 시작되어야 상대국과의 재협상 시기와 방법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
- 영국의 EU 탈퇴가 완료된 이후에야 한·영 FTA 추진이 가능한 경우, 그 이전까지 영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한·EU FTA 특혜관세를 부여함
- EU의 승인 하에 또는 자동으로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시점부터 영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새롭게 제정되는 자국의 MFN 실행관세율을 적용하게 됨
 - 영국은 브렉시트로 인한 무역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MFN 실행관세율 제정시 EU의 기존 MFN 실행관세율을 그대로 준용할 가능성이 큼

(2) 한·영 FTA 추진 시나리오

- 영국의 EU 탈퇴 이후 추진될 한·영 FTA의 결과에 따라 우리의 對영국 수출에 대한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
- (시나리오 1) 한·영 FTA가 발효 5주년이 지난 한·EU FTA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영국은 모든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무세를 적용하게 됨

- (시나리오 2) 영국이 한·EU FTA와 차별적인 한·영 FTA를 원할 경우 기존에 EU 차원에서 무세 혜택을 받았던 품목에 대해 새로운 양허스케줄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
 - 영국이 EU 차원의 FTA 체결 상대국(총 53개 경제권)과 새로운 내용으로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영국 스스로에게 이득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시나리오 3) 한·영 FTA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영국의 MFN 실행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관세 부담이 커짐
 - 특히, 지금까지 영국 시장에서 한·EU FTA를 통해 일본, 중국, 대만 등에 비해 관세상 유리했으나, EU 탈퇴 이후 MFN 실행세율을 부과할 경우 등등한 입장에서 경쟁해야 함

〈한·영 FTA 추진 시기 및 시나리오별 결과〉



자료: 저자 정리

(3) 한·영 FTA 협상 장기화시 영향

- 한·영 FTA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영국의 對한국 수입 중 약 54%에 대해 한·EU FTA 특혜(무세)가 사라지고 관세가 부과됨
- 영국이 EU 수준의 MFN 실행세율을 부과하게 된다면 자동차 및 부품, 항공기 부품, 플라스틱 제품 및 합성수지, 고무제품 등의 관세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

- 對 영국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에 대해 10% 관세가 적용될 경우 수출기업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영국이 EU와의 단일시장을 유지하면서 탈퇴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영 FTA 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EU 자동차에 비해 매우 불리해질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브렉시트가 한영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국의 EU 탈퇴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EU FTA를 그대로 승계하는 방식으로 한영 FTA를 체결해야 할 것임

〈 한영 FTA 협상 장기화시 주요 관세 부담 품목 〉

(단위 : 백만 유로, %)

품목	對 한국 수입		탈퇴 이전	탈퇴~한영 FTA 발효 이전	
	'13~'15 평균	비중	한-EU 특혜관세 (16.7.1)	단순평균 관세율	가중평균 관세율
자동차	1,022.6	22.8	0	8.5	10.0
석유제품	496.1	11.1	0	1.9	0.0
무선통신기기	315.4	7.0	0	3.8	0.7
건전지 및 축전지	274.5	6.1	0	3.2	0.8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246.6	5.5	0	1.5	0.1
컴퓨터	197.5	4.4	0	0.8	0.0
건설광산기계	157.0	3.5	0	0.6	0.4
자동차 부품	128.1	2.9	0	3.8	3.6
항공기 부품	118.7	2.6	0	3.0	3.1
플라스틱 제품	96.0	2.1	0	5.9	6.5
금은 및 백금	82.6	1.8	0	0.0	0.0
합성수지	79.1	1.8	0	4.3	5.3
철강판	78.6	1.8	0	0.0	0.0
고무제품	75.8	1.7	0	3.4	4.4
금속공장기계	51.3	1.1	0	2.3	2.6
소계	3,420	76.3			

주: 1) 영국이 새로 제정하는 MFN 실행세율을 2016년 현재 EU의 MFN 실행세율 수준으로 가정

2) 가중평균 관세율은 2013~2015년 3개년간 영국의 對 한국 평균 수입금액으로 계산

자료: 관세청, 한국무역협회(K-stat)

IV. 결론 및 대응전략

- 작년 하반기부터 유로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FTA 수혜 품목을 중심으로 EU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고 對EU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FTA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음
- 한·EU FTA 체결 이후 유로존 재정위기, 이란 제재에 따른 원유 수입선 전환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EU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되고 FTA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음
- 한·EU FTA 발효 5년차 한국의 對EU 수혜품목 수출 증가율이 12.5%로 비수혜품목 증가율(2.3%)을 크게 상회했으며, 이에 힘입어 EU역외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발효 전 2.25%에서 2.43%로 상승
- 특히, 영국에 대한 FTA 수혜품목 수출이 발효 5년차에 20.6% 증가하였으며, 對영국 FTA 수출활용률도 80%를 상회함
- 한편, 브렉시트가 결정됨에 따라 EU 및 영국의 경기 둔화와 환율 절하에 따른 수입수요 감소로 EU 및 영국에 대한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큼
- 영국이 완전히 EU에서 탈퇴하기 전까지는 對영국 수출시 한·EU FTA가 적용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현지 수요 변화 및 환율 변동이 가장 클 것으로 보임
- 영국의 EU 탈퇴가 완료되면 한·EU FTA 특혜가 종료되고 영국의 MFN 실행 관세가 적용될 전망이며, 한·영 FTA 협상이 장기화되거나 내용상 한·EU FTA보다 후퇴할 경우 對영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됨
- 영국 시장에서 누렸던 한·EU FTA 특혜가 사라져 일본, 중국, 대만 등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며, 특히, 상대적으로 관세가 높은 자동차 및 부품, 플라스틱 제품 및 합성수지 등에 대한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임

- 브렉시트에 따른 전 세계적인 금융 불안과 향후 실물 경기에 대한 과장이 예상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지역별 수출 및 생산전략을 재검토하고 환변동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음
- 파운드화 평가절하 및 유로화 약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對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의 경우 엔화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EU 탈퇴 완료 이후에도 한-EU FTA상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한-EU FTA를 그대로 승계하는 방식으로 한-영 FTA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할 것임
- 아직 영국이 EU 차원에서 체결한 FTA를 처리할 수 있는 시기 및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영국-EU 탈퇴 협상 과정의 논의를 철저히 모니터링해야 함
- 한-EU FTA 특혜가 소멸되고 영국의 MFN 실행세율이 부과되는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협상을 마무리해야 함
-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브렉시트로 인해 보호무역주의 및 고립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가간 공조를 강화해나가야 할 것임
- 미국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가 강화되고 자유무역 협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에 브렉시트에 따른 고립주의와 맞물릴 경우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이후 G20 정상회의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을 방지한 경험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상당히 기여한 바 있음
- 우리 협회를 비롯한 무역 유관기관들은 향후 영국과 EU간 탈퇴협상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브렉시트에 따른 우리 기업의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할 것임
- 무역협회는 ‘브렉시트 영향 대응반’을 운영하고 www.kita.net에 브렉시트 배너를 설치하여 현장애로를 수시로 접수하고 관련정보를 무역업계 및 정부에 실시간으로 전달할 예정임